

트럼프 앙숙들 “사드 완전배치 文 압박하라”

경선 라이벌 크루즈·루비오 등 상원 18명 트럼프에 공개서한 정상회담 영향 미칠지 주목 매케인 문 대통령 환영 결의안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지연 문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사드의 완전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25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과 밥 매넨데스(민주·뉴저지)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 18명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에는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 대통령과 첫 정상

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그리고 북한과 같은 공통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공동조치를 취할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면서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전방위 방어 능력을 전개하고 무력시위 연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당신(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또 이것은 한국의 이웃들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면서 미군과 수백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과 다른 경제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보복조치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확연히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한인들이 오늘날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미군 3만6574명이 자신들의 목숨을 던졌다”면서 “지금도 그 자유를 보호하고 동맹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 군대는 모든 주요 전쟁에서 나란히 함께 싸웠다.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역사적 동맹에 기반을 둔 우리의 유대는 깨질 수 없고, 또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제공

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당신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또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 최대의 압박 작전은 한국과의 완전한 협력 및 일치 하에 서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의 신속한 완전배치와 더불어 철저한 대북정책 공조 필요성을 압박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서한은 미 상원이 문 대통령의 첫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됐다. 앞서 문 대통령 방미 환영 결의안에는 존 매케인(공화·플로리다) 상원 군사위원장과 민주당 상원 서열 2위인 디 더빈(일리노이) 원내총무, 가드너 의원과 매넨데스의 의원 등 19명이 서명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당 태종의 거울 위징

위징(魏徵, 580-643)의 자는 현성으로 산둥성 곡성 출신이다. 태종 이세민의 간관이 되어 정관성세(貞觀盛世)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수나라 말 천하 혼란기에 이밀의 반군에 참여했다. 이밀이 왕세충과의 결전에서 패해 당 고조 이연에게 귀순하자 고조의 장남 건성의 참모가 되었다. 626년 현무문의 정변이 일어나 이세민이 형인 황태자 건성과 동생 원길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태종은 위징을 소환해 엄하게 꾸짖었다. “그대는 왜 우리 형제들을 이간질 했는가?”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만일 황태자가 소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이세민에 대한 선

그는 남언을 중시했고 언론가 활짝 열리도록 노력했다. 백성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펴는 길만이 형제를 죽이고 왕좌에 오른 자신의 과오를 씻을 수 있었다. 그는 “군신은 함께 난을 다스리고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 군주가 충언을 받아들여야 신하는 거리낌 없이 간언을 할 수 있고 이로써 군신이 화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위 군신일체론(君臣一體論)이다.

하루는 태종이 선물로 받은 사냥배를 감상하던 중 위징이 다가오자 급히 품안에 숨겼다. 위징이 잠시만 보고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매사 품안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위징은 황제에게도 버거운 신이었다. 태종이 장안에서 낙양으로 가는 도중 소인공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

목숨 걸고 쓴소리 왕도정치 이끌어

제 공격을 건의한 그의 의견을 듣지 않아 반대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당당한 반론이었다. 태종은 그를 간의대부로 발탁했다. 황제에게 가깝없이 직언을 하는 자리였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군신 관계가 탄생한 것이다.

태종의 측근이 된 위징은 즉시 하북 지방의 민심 수습에 나섰다. 하북은 당나라의 골칫거리로 두건덕, 유축달 등 반당 세력의 거점이었다. 산둥 출신인 그는 하북의 민심을 두루 이루며 태종의 통감과 포용의 정책이 구현되게끔 노력했다.

그는 “감히 간언했고 능히 간언했고 훌륭히 간언했다”는 말과 같이 위대한 간관이었다. 또한 “입금을 모시는 것은 호랑이를 대하는 것과 같다”며 늘 삼가는 자세를 견지했다. 태종이 패도정치가 아니라 왕도정치(王道政治)를 구현하도록 간언했다. 수많은 천하 대란을 거치면서 엄격한 법집행이 강조되는 패도정치가 성행했다. 그는 백성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정(仁政)을 강조했다.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말처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왕도정치를 역설했다. 태종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위대한 정치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었다.

태종은 현무문의 비극을 깊이 반성해 간관의 직언을 과감히 수용했다.

었는데 식사 대접이 소홀하다고 대노했다. 위징은 “수양제는 특하면 먹을 것이 변변치 않다고 나무란 까닭에 백성들이 반발해 멸망하고 말았다. 폐하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 신중하고 근신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태종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고 반성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주군이 요·순 황제만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 간언을 자신의 의무로 삼았다고 한다. “여러 주장을 두루 들어야 사리가 분명해지고 일부의 주장만 들으면 편협해진다”는 겸칭편신(兼聽偏信)이야말로 그의 직언방식이었다.

그는 태종의 고구려 정벌을 반대했다. 국력의 손실이 크고 정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위징 사후 요동 정벌에 나섰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회고 길에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라며 크게 후회했다. 643년 중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문정공(文貞公)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가 죽자 태종은 “사람이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히 할 수 있고, 옛일을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를 알 수 있으며, 다른 사람울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다. 이제 위징이 세상을 떠났으니 거울 하나를 잃은 셈이다”고 깊이 탄식했다. 위징이야말로 태종의 거울이었다.

한국 빼고...미·일, 동해 요격미사일 이지스함 2배 확대 논의

일본 정부가 동해에 배치 중인 탄도미사일 방위(BMD) 대응 이지스함을 4대에서 8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다음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외교·국방 담당 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2+2)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양국 BMD 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동해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4척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4척만으로 일본 전체의 미사일 공격을 커버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기존 이지스함을 BMD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량하거나 새로 배치해 모두 8대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일본 정부는 2+2 회의에서 이지스함의 SM3를 지상에 배치하는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을 도입할 계획임

을 미국 측에 알릴 계획이다.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에 관련 비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은 회의 참석 전에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이지스 어쇼어 실험시설을 시찰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BMD 태세 강화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루지는 것은 북한이 기존 미사일보다 고도가 높은 ‘로프트드’(lofted) 궤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14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은 로프트드 궤적으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프트드 궤적의 미사일은 좁은 각도에서 고속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회의에는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라마단 끝났다” 뉴욕서 축제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이 종료된 다음 날인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 거리에 ‘이드 알피트르’ 축제를 즐기러 나온 이슬람 신도들이 모여있다. 이슬람권선 라마단이 끝난 후 이를 성공적으로 지킨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음식과 함께 축제를 즐긴다. /연합뉴스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 H. 010-6838-1230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 모텔

- 전남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 시세/감정가 - 17억
 -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법인체 인수 가능
- 산수유/벚꽃축제, 전지훈련,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